

## 더 멀리, 끝까지 가보기 위해

구병모 『있을 법한 모든 것』(문학동네, 2023)

최은영,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문학동네, 2023)

### 1. 글쓰기의 소망

새로 출간된 최은영과 구병모의 소설집을 읽다 보면, 이 두 작가가 끊임없이 글쓰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글쓰기는 소설가인 이들이 자신들의 작업에 품은 자의식이기도 하겠지만, 언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전달받으면서 소통하는 과정에 대한 은유이기도 할 터이다. 글쓰기라는 자의식이 소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뻗어 나가는 광경은 이들의 소설을 읽는 기쁨이며, 관계와 소통의 단절감에 시달리는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한다. 굳이 가려 뽑지 않아도 눈에 띄는 몇 개의 구절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든 되도록 하자. 이 세상에 기입되는 단 하나의 문장, 그 종지부에 찍히는 부호라도 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 같으면서 다른 모습으로 동시에 조우해야 한다. 이 조우의 중첩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설령 이유가 거세되더라도 존재 그 자체가 전부이고, 무의미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의미임을 증명하는 파동이다.

산산조각난 신의 찻잔이 우주에 흩어져 별이 된다. (구병모, 『Q의 진혼』, p. 193)

문장과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를, 모든 단락이 제 역할을 다하기를,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당신은 바랐다. (최은영, 「뭉」, p. 58)

구별모의 「Q의 진혼」은 0과 1로 조합되는 디지털신호의 오류를 기반으로 한다. 진혼의 대상은 시스템 내로 연결되지 못하고 유실되어 버린 디지털신호이다. 결합을 통해 의미를 획득해야 하는 신호가 적절한 결합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 아직 말이 되지 못한 입자의 떠돌. 소설은 그것을 “구천을 떠돈다”(p. 174)라고 표현한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종종 일어난다. 분명하고 오류 없이 이메일을 전송했으나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는다. 해독 불가능한 신호로 에러를 일으키는 말의 입자들, 오류의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그 데이터들의 행로를 추적하는 소설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신호만큼이나 불분명하여 명확한 서사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의 의미, 글쓰기의 의미를 명징하게 추적하고 있기도 하다. 인용은 이처럼 정처를 잃은 말들의, 어디선가 의미를 이루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다른 입자들과의 우연한 만남, 조우에 기대고 있다. 그리하여 부서진 말의 파편이 어느 우주에서인가 별이 되기를 소망한다. 『있을 법한 모든 것』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은영의 「뭉」은 대학 학보사에서 만난 세 명의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 그들은 모두 글쓰기를 통해 성장하고 글쓰기를 통해 연결되었던 사람들이다. 시간이 흘러 이 세 명의 여성 ‘정윤’과 ‘희영’ ‘해인’은 저마다의 삶으로 흩어졌지만, 글쓰기에 전부를 걸었던 마음과 글쓰기로 확고했던 서로에 대한 믿음은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p. 58)이라는

소망은 글쓰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소망이지만, 또한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소망이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지를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는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들 소설에서 ‘글쓰기’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까닭은 이 ‘글쓰기’가 문장을 만들고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 그 자체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문장이 전달되는 동안 관계가 끼어들고 맥락이 만들어지며, 그것이 전달되거나 전달될 수 없는 배경들이 구체화된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방해꾼과 파괴자가, 공감과 나눔이 이 글쓰기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니 이들의 글쓰기는 거의 삶 전체, 세상 전부이다. 글쓰기가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동안 우리의 경험과 사상이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더 명료해진다. 이들 소설이 문제적인 것은 글쓰기에 천착하되 또한 글쓰기만이 아닌 세계를 자꾸만 드러내기 때문이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꾸만 따져 묻게 한다. 그래서 이대로 좋겠느냐고, 그래서 어찌면 좋겠느냐고.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의 영문학 강사 ‘그녀’는 책상에 앉아 책에 밑줄을 그으면서 희미하게 만났던 다른 세계를 좇아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썼다. ‘더 가보고 싶었다’고 했던 것은 책과 학문을 통해 만났던 다른 세계를 향한 말이었겠지만, 구병모와 최은영의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이 작가들이 글쓰기를 통해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가보는 일’, 그리하여 ‘끝까지 묻는 일’. 그것이 글쓰기를 통해 가능하다고, 소설을 통해 가능하다고 작가들은 말한다. 그들의 글쓰기가 무엇을 불러오는지, 무엇을 묻고 있는지 더 멀리 가보도록 하자.

## 2. 우연에 기댈 때도 있다

구병모의 『있을 법한 모든 것』에는 ‘언어’의 획득과 전달, 혹은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편 등장한다. 디지털신호의 유실 혹은 오류를 다룬 「Q의 진혼」, 메모로만 소통하는 호텔 장기 투숙자와 룸 키퍼의 로맨스(에 대한 상상)인 「있을 법한 모든 것」, 치매로 인지가 흐려진 어머니가 발음하는 정체불명의 언어 「니니코라치우폰타」, 어느 날 낯선 존재로부터 가격당하여 언어를 잃어가는 질병의 유행 「노커」.

이 소설들에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돌려놓았던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팬데믹으로 타인과의 접촉이 위험과 기피의 대상이 되었을 때, 비대면의 삶은 고립이지만 또 다른 연결의 가능성이기도 했다. 접촉하지 않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그리하여 더 전면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욕망과 그 대안이 분분했던 비대면의 상황은 아직 우리의 일상 여러 곳에 건재하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비관적이다. 접촉이 실어(失語)와 실서(失書)의 원인이 되어 일종의 ‘묻지 마 범죄’처럼 사람들을 공격하는 「노커」를 보라. 어느 날 ‘다정’은 지하철역에서 누군가와 세계 부딪친다. 부딪혔다기보다는 가격을 당했다고 하는 편이 옳다. 찌르기 범죄인 줄 알고 자신을 치고 지나간 사람을 뒤쫓던 다정은 범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얗게 질려 쓰러졌고, 곧 말을 잃었다. 생각이 말이 되지 못하고 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다정은 점점 더 공포와 경악,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다. 그것은 다정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알 수 없는 부딪침 이후 말을 잃어가는 증세를 앓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늘어갔다. ‘방법과 원리와 의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고 규정한 당국은 “첫째, 가급적 타인과의 신체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고, “둘째, 뜻밖의 접촉이 발생했

을 때 가능한 한 고의 접촉자를 추적하지 말고 신고”(「노커」, p. 85) 하라는 지침을 내놓는다. 접촉 자체가 공포가 되고, 폭력이나 침해에 침묵하는 것이 안전한 삶의 원리가 되어버린 세계. ‘방법과 원리와 의도’를 모르는 범죄 자체도 공포이거니와 거기서 파생되어 무너져가는 삶의 기반들, 안전과 예의와 윤리 그리고 생존이 더 문제다. 말을 매개로 삼는 거의 모든 직업이 붕괴되었고, 금융과 상업과 언론과 법률과 의료, 사회를 유지하는 거의 모든 체계가 마비되었다. 느닷없는 가격으로 말을 잃은 사람들은 복수하듯 다른 사람들을 치고 다녔고,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본위의 폭력은 점점 더 거침없어져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타인과의 대면이 공포가 되고 폭력이 되는 상황이 전염병처럼 널리 퍼져 점점 더 큰 파괴로 이어지는 모습이 이보다 더 적나라할 수 없다. 작가는 적정한 선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리하여 말을 건네고 그것을 이해하며 자기를 표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잃는 것이 얼마나 많은 파괴와 상실로 연결되는지도 적나라하다.

현대인에게 위안을 주는 밝고 가벼운 로맨스 콘텐츠를 주문받은 C가 구상한 소설의 비대면은 달콤하다(「있을 법한 모든 것」). 호텔에 장기 투숙하는 남자는 어느 날 별 뜻 없이 방을 청소하는 ‘룸키퍼’에게 감사의 메모를 남긴다. 메모는 계속되는 교신으로 이어진다.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채로 감사와 겸손, 관심과 호의, 하소연과 격려를 나누는 사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을지도 모르)는 출신과 성별, 나이와 계급의 실제 조건들이 제거된 곳에서 짧은 메모들로 주고받는 마음은 순정하다. 그러나 이 비대면의 소통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C의 상상 속에서 씌어지는 로맨스와 C의 실제 일상이 교차되는 소설에서 C가 겪는 비대면의 현실은 상상 속의 로맨스를

계속해서 배반한다. 매점 창구 앞에서 비대면을 빌미로 행패를 부리는 주정뱅이, 디지털 약자들을 소외시키는 키오스크, 비대면을 틈타 이루어지는 홈케어 서비스의 눈속임, 상상 속의 로맨스에서 남자와 림 키퍼가 점점 더 내밀한 소통과 기대로 달려 나갈수록, 현실에서의 소통 가능성은 실망, 혹은 위협을 야기하며 소멸해간다. C는 그가 꿈속에서 착안한 로맨스를 여러 경우의수로 실험하면서 진전시켜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대단원.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그와 그녀가 마주친 순간, 그들은 상상했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은 상대와 사랑에 빠진다. 물론 그 결말은 C가 온갖 가능성을 상상하며 대중의 취향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조정한 결과이다. 남자의 상상과는 달리 상대는 초로의 여인일 수도 있고, 그들이 만나기 이전에 그녀는 이미 계약이 만료되어 일을 그만두었을 수도 있었으나, C의 상상은 대중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선에서 멈추었다. “영화적 낭만과 꿈을 엄격히 배제한 일상의 시궁창”(p. 105)을 현실이라 한다면, C가 만든 로맨스는 콘텐츠 산업의 울타리 안에서만 안전한 대중의 환상일 뿐이다. 로맨스와 교차되는 C의 적나라한 현실 때문에 이 로맨스의 허구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소통과 연결의 불가능을 끝까지 밀어붙인 곳에서 우리는 의미의 접속이 불가능한 채로 부유하는 신호 1(「Q의 진혼」)에 스스로를 겹쳐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언어의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 삶 자체, 세계 자체가 된다.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접속과 연결의 꿈을 버리지 못한 채로 무의미의 바다를 떠도는 실패한 말의 미세 입자. “선택받지 못한, 저장되지 않은, 분명 발신자를 떠났으나 수신자에게는 닿지 못하고 도중에 행방불명된 데이터”(p. 179). “산산조각난 신의 찻잔이 우주에 흩어져 별이”(p. 193) 되기란 요원하겠지만, 그것이 전달되지 못한 채로 부유하는 존재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꿈일지도 모르겠다. 말을 잃은 절망에 울부짖던 ‘다정’이 스스로 ‘노커’가 되어 집을 나서는 결말(「노커」)은 냉혹하다. ‘노커’에게 가격당해 말을 잃은 다정은 타인을 가격하는 노커가 되었다. 그것은 폭력 이자 범죄이지만 또한 말을 건넬 수 없는 다정이 유일하게 보낼 수 있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파괴와 침해의 방식으로만 소통할 수 있는 세계는 악몽이며, 그 악몽을 우리는 매우 냉혹하게 확인하였으니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똑바로 보는 일. “노크에 응답하여 후드를 벗기고 네 얼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너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든 간에 그 얼굴을 두 눈 뜨고 똑바로 바라볼”(p. 95) 것이다. 느닷없이 우리를 가격하고 지나간 존재들을,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악몽과 공포를 들여다보는 일. 결국 그것이 구병모의 소설 쓰기가 아니었을까. “무엇이든 되도록”(「Q의 진혼」, p. 193) 애쓴 끝에, 어디에선가 ‘무엇이든 되어 있는’ 누군가와 만나질 때까지. 그 누군가에게 발견되거나 마주칠 수 있도록, 얼굴 없는 당신을 여기서 바라보며 존재할 것이라는 전언을 들은 것도 같다.

### 3. 그러나 부디 너에게 닿기를

최은영의 「뭉」을 읽으면서 글 쓰는 여자들의 우정과 연대에 대해 오래 생각했다. 오랜 우정과 연대란 이들의 실패와 좌절까지를 포함한 말이다. 「뭉」은 정윤과 희영, 그리고 해인이 얼마나 글쓰기에 전력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서로의 글에 어떻게 매혹당했는지를 공들여 서술한다. 스무 살 어름 대학 교지 편집부에서 만난 그들에게 글쓰기는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쓰기가 곧 그들의 삶이었고 우정과 연대의 실체였기 때문이다. 해인이 기억하는 정윤의 글은

“한번 읽고 나면 읽기 전의 자신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글”(p. 52) 이었고, 희영의 글은 “명확한 주장과 그를 받쳐주는 논리적인 근거로 짜인 단단한 글이었다”(p. 67). 그리하여 해인은 그들의 글을 읽으며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 잠겨 있는 당신의 느낌과 생각을 언어로 변화시켜 누군가와 이어질 수 있는 글을”(p. 52) 꿈꾸었다. 그것은 결코 글쓰기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해인은 그저 문장과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단락이 제 몫을 하는 글을 쓰려고 노력했을 뿐이지만, 그것은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는 일이기도 했다. 정윤과 희영의 글을 읽고 해인의 삶이 변했다. 해인은 정윤의 글을 읽고 남자 선배들의 희롱과 농담을 듣기 싫어 그저 피하기만 했던 자신을 돌아보았고, 희영의 글을 읽고 자신이 오랫동안 남자들의 시선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글쓰기를 통해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최은영은 글쓰기의 힘을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계속 밀고 간다. 그것은 글쓰기가 삶을 대신할 수 있다는 과신과도 다르고, 희영의 말처럼 읽고 쓰는 것만으로 몫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부채감을 털어내는 태도와도 물론 다르다. 글쓰기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른다. 실제로 서로의 글쓰기에 매혹당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심치 않았던 정윤과 희영, 그리고 해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멀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연결되어 있었던 순간을 변함없이 기억하고 있으며, 멀어짐의 계기들 역시 예민하게 알아채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원 성희롱 사건을 주제로 다루겠다는 희영을 지지하기 위해 정윤이 “일개 여성 문제가 아니라 대학원 사회의 기형적인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p. 57)라고 말했을 때, 아내 폭력 문제를 쓰겠다는 희영에게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편을 살해한 여자들의 이야기는 빼는 것이 좋을 것 같”(p. 67)다

고 말했을 때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 사이의 틈이 드러났다. 성희롱을 ‘일개 여성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정윤과 희영의 글쓰기는 다른 곳을 향한다. 더 큰 억압으로 작은 억압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래서 명백한 피해와 폭력을 우선과 차선으로 나눌 때 그들의 말은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하며, 그들의 언어는 누군가와 이어지기 어려워진다. 다수의 공감을 위해 하나의 주제를 누락시켜도 좋다고 생각할 때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정윤은 민족과 계급을 운운하며 여성 문제를 부차화하기 일쑤였던 용욱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떠났다. 자신의 공부를 미루고 용욱을 뒷바라지하는 정윤을 해인과 희영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의 연결은 끊어졌다. 그러니 글쓰기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까닭은, 삶을 계속 문제 삼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정윤과 해인과 희영은 멀어졌지만, 최은영은 이들의 곁에서 계속 묻는다. 문장과 문장,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미세한 틈과 엇갈림을, 그것이 무엇에서 기인하는가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글쓰기의 힘이란 이런 것이다.

최은영은 글쓰기로부터 관계와 소통의 성분을 이끌어낸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의 ‘그녀’와 ‘희원’, 「일 년」의 ‘다희’와 ‘나’의 소통을 보자. 정윤과 희영과 해인처럼, 한때 긴밀히 소통하며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한 그녀와 희원, ‘나’와 다희는 어느 시기 자연스럽게 멀어져 연락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기미는 있었다. 희원이 그녀에게 여자 강사라서 학생들이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을 때, 대학원에 가겠다는 희원에게 그녀가 대학원이 아니라도 공부는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희원의 말 때문에 그녀는 지키고자 했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희원은 그녀가 공부에 대한 열망을 가버이 여긴다 싶어 서운했을 것이다. 관계와 소통의 성분을 말하려면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미세하지만 단 하나도 놓칠 수 없기 때문

이다. 이 미세한 틈과 엇갈림에 대해서, 작가는 계속해서 묻는다. 오롯하게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 잠겨 있는 당신의 느낌과 생각을 언어로 변화시켜 누군가와 이어”(『몹』, p. 52)지는 글쓰기는 계속된다. 그 글쓰기가 마음에 자국을 남기고, 공감했던 순간을 남기고, 남겨진 것들이 이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다른 사람이 되게 한다.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 것들로 남아 우리의 기억과 마음을 만든다.

최은영의 소설은 “언제나 미묘한 파동이 만들어진 원인으로 여러 사회 조건 및 역사적,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을 짚어왔”(양경언, 해설 『더 가보고 싶어』, p. 332)고, 이는 최은영 소설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장의 연결을 고민하며 가만히 이어지는 글쓰기를 한 명 한 명의 삶에 일치시켜나가려 했기 때문에 그 미덕이 점점 분명해졌다는 것만 말해두고자 한다. 글쓰기는 누군가의 삶을 반영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한다. 그 수행을 통해 우리는 한 발자국씩 더 멀리 간다. 작은 오해나 미진함을 으레 그런 것으로 단념하지 않고, 연결되지 못한 단절의 국면들에 쉽게 좌절하지도 않으면서, 연결의 기억으로 맥락을 만들면서, 함께 존재한다. 그것이 최은영의 글쓰기라는 것을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통해 다시 확인한다. 다른 방식이겠지만 구병모의 글쓰기가 닿은 곳도 비슷한 자리일 것이다.

서영인

문학평론가. 2000년 창비신인평론상을 통해 비평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평론집 『충돌하는 차이들의 심층』 『타인을 읽는 슬픔』 『문학의 불안』, 연구서 『식민주의와 타자성의 위치』 등이 있음.